

[illegible]

<교내 독도 사랑 캠페인-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나는야 독도 지킴이!”



안동복



1693년 3월, 안동복은 울릉도에서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일본 어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동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인들은 물러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안동복과 함께 있던 어부 박어들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으로 납치된 안동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안동복의 강력한 주장으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하지만 일본 어부들은 계속해서 우리 땅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화가 난 안동복은 관리로 변장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안동복은 환영과 칭찬이 아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항부로 일본으로 건너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안동복의 용기에 감동한 몇몇 신하들 덕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반크스 해성 X 독도 어벤져스

“독도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있을까?”



괘이 갈매기



취미종 ‘섬시호’



독도 수호 동물 ‘강치’



섬장대

독도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독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물은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인 생물로는 괘이 갈매기가 있어요. 괘이 갈매기는 독도를 대표하는 텃새로 매년 4월이면 독도 전체가 괘이 갈매기 구역이 돼요. 둥지만 해도 독도와 서도를 합쳐 3500둥지가 넘고, 모두 세면 1만여 마리가 된다고 해요. 괘이 갈매기의 부리 끝에는 붉은 색의 얼룩점이 있고, 고양이 소리를 내서 고양이의 사투리인 괘이가 붙여 ‘괘이 갈매기’라 이름 지어진 거예요. 또, 대표적인 생물로는 독도 수호 동물인 강치가 있어요. 강치는 선사시대 때부터 독도에서 살았던 바다사자의 한 종류예요. 강치의 종류는 세가지인데 그 중에서 독도 강치가 가장 똑똑하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치의 가죽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들고 강치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용하는 등 강치를 말살하여 20세기에는 독도에서 강치가 완전히 멸종되었어요. 이외에도 독도의 생물로는 해국, 민들레, 섬장대, 섬시호 등의 식물들도 살고, 오징어, 흑돔 등의 해양 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반크스 해성 X 독도 어벤져스